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EPS takes option on fourth dual-fuel LPG newbuilding

현대미포조선이 수주한 40,000CBM급 Dual-fuel LPG선에 대한 발주처가 Eastern Pacific Shipping (EPS)라고 보도됨. EPS는 확보하고 있던 옵션분을 확정발주했다고 보도됨. 이 선사는 2022년 하반기 인도될 물량으로 이미 3척을 발주한 바 있으며 당시 체결된 계약가격은 척당 5,250만달러로 알려짐. (TradeWinds)

South Korean probe into GTT practices heads to court

한국공정거래위원회가 장기간 준비한 프랑스 GTT에 대한 조사 결과가 한국시간 21일 서울법원에서 확인될 예정이라고 보도됨. 공정위는 LNG 화물창 기술인 GTT의 membrane type에 대하여, 라이선스계약을 통해 국내 조선업계가 LNG선을 건조하는 과정에 대하여 '지배적 지위 남용 가능성'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조사해왔다고 알려짐. (TradeWinds)

Third of listed owners reporting emissions figures as shipping cleans up

영국의 해운조사기관 Clarkson에 따르면, 해운업 내 배기가스 배출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보도됨. Energy Transition에 대한 향후 전망을 담은 보고서에서, 해운업이 전세계 배기가스 배출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3%이며 연간 800만톤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있다고 발표함. 트럭이나 철도를 통한 운송업과 달리 가장 탄소효율적인 운송수단이라는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발표함. 저속운항 및 친환경선박 도입을 통해 2008년 이후 배출량은 18% 감소했다고 보도됨. (TradeWinds)

현대로템, 수소전기트램사업으로 산업부 규제특례 승인받아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2020년도 제3차 산업융합 규제특례 심의위원회'를 열고 규제 샌드박스(규제 특례) 적용을 신청한 안건을 가운데 현대로템의 사업을 포함해 10건을 승인했다고 보도됨. 현대로템은 수소저장용기와 수소연료전지 등을 탑재한 수소전기트램을 시험 제작해 트램 노선을 따라 시험주행하는 사업을 실증한다고 보도됨. (비즈니스포스트)

현대중-대우조선 조건부 승인 우려, 수은행장 "합법 협의할것"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해외 기업결합심사를 조건부로 승인하는 것에 대한 우려에 대해 방문규 수출입은행장이 "합법적이고 합리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힘. 산업은행은 앞서 EU의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 심사와 관련해 "연말까지 아니면 내년 초까지는 결정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힘. 16일 열린 국감에서 산업은행 회장의 발언이 조건부 승인을 허용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되어 LNG선 시장점유율 하락에 대해 우려가 제기된 바 있음. (파이낸셜뉴스)

방문규 "두산중공업 내년까지 구조조정 자금 순조롭게 상환"

방문규 수출입은행장이 내년 말 두산중공업이 지원 금액의 일부를 상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힘. 자율적으로 구조조정 작업 진행되고 있고 내년까지 자구계획으로 해당하는 금액이 순조롭게 상환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힘. 앞서 산은과 수은은 연말까지 두산중공업에 각각 1조5,000억원씩 최대 3조원을 지원하기로 한 바 있음. (서울경제)